

부안군, 새만금 수상태양광 본궤도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지역업체·기자재 중심 ‘햇빛 연금’ 기반 마련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9일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배분된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 2구역에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네 차례의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끝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해 8월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0여 차례의 협상단 회의 끝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

부안군은 지난 9일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협약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발전기여금 납부, 지역업체·지역기자재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에 중점을 뒀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총투자비 2600억원을 투입해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사업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컨소시엄은 대표사 효성중공업, 발전

사 동서발전, 전북자치도 내 지역업체 금도건설·디엔아이코퍼레이션, 전북자치도 내 지역기자재 신성이엔지·태평양·유진솔라 등 7개 참여사로 구성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도 2026~2030년 ‘동부권’ 청사진 그린다

동부권 6개 시군 본격 착수 식품·관광 중심 전략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2025년 제1회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식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과 ‘2024년 추진사업 실적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위원회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식품, 관광, 경제, 복지 등 다방면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전북 동부권

발전계획(‘26년~‘3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가 진행됐다.

연구책임자는 농식품·관광·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동부권만의 성장 전략과 신규사업 발굴을 제시하며, 향후 5개년(‘26년~‘30년)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의 큰 틀을 제안했다.

또 ‘2024년 동부권발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동부권발전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 사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적평가 대상은 총 20개 사업 시군별로는 △남원 2건 △진안 5건 △무주 4건 △장수 4건 △임실 2건 △순창 3건이다.

이 중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관련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사태, 총체적 부실”

여가부·전북도 허위보고 역량 부족…6명 수사 의뢰 전북 “결과 겸허히 수용”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은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 등 전반적인 역량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고, 물자준비, 시설 설치, 부지 선정 등 행사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5년 7월 부지 매입이 필요한지 등 제반 여건 검토 없이 현장을 육안으로 둘러본 후 야영에 부적합한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관리기금의 사용이 농지조성 등과 직접 관련되는 용도로 제한돼 관광·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입에 기금을 투입할 수 없는 데도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직위 사무총장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 퇴직 공무원들을 선임하고, 국제행사 경험에 있는 직원 비율이 6.3%에 머무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행사 기간 중에는 폭염 물자 등 야영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참가자 출입관리 등 현장 대응도 부실했다. 행사를 위한 조정, 위생, 통신 등 각종 시설도 부실 설치했으며, 준비 상황 사전 점검·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종 계약 비위와 외유성 출장 등 기강해이 사례도 발생했다.

이밖에 여가부는 조직위로부터 화장실, 샤워장 미설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점검에서 의료·사무기기 등 시설이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해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담당 업무를 부실하게 한 여가부와 전북도에 주의를 요구하고, 여가부·전북도·전북교육청에 공무원 5명을 징계하라고 했다. 퇴직한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여가부 출신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비위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공무원행방배, 입찰방해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6명은 수사 기관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이 전 대표 대선출마 선언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21대 대선 출마선언 영상에서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다”며 “흰옷 입은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작지만 큰 나라,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사태’에 대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은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이 커진 근본적인 원인은 먹고살기가 어려워진, 경제적인 것”이라며 “더 잘살게 됐는데 부족하게 된 이유는 편중됐기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져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민간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줬다”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정부 단위의 인력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 시민 중심, 으뜸 정읍
- 2025년 정읍시 핵심 운영 방향
1.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 경제 도시

2.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3. 미래기반산업 육성으로 앞선 첨단 도시

4. 도농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도시

5. 삶에 온기를 더하고 누리는 건강한 도시

6. 사람중심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도시

새만금청 ‘스마트도시 수립 연구용역’ 착수

도시계획 체계적 수립 자율주행·DRT 도입 검토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과 광역 교통거점인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의 연계성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새만금 산업단지화 수변도시 등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 및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 자리에서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만금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CF100 시범단지 등 다양한 미래전략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과 새만금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과학원 참여 전문성·신뢰도 확보 저비용·고효율 올림픽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증에 돌입했다.

타당성 조사는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유치를 목표로 추진된다.

하계올림픽 착수보고회를 통해 유치 여건분석과 대회 기본계획 검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연구 및 분석 전문기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을 맡았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은 다수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분석과 정책수립을 주도

해왔다.

도는 조사에 따른 전북 올림픽 유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높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대 올림픽 개최사례 분석, 전북 유치 환경 및 인프라 분석, 시민 여론 및 경쟁도시 동향조사, 정책 및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기존 경기장 활용 방안과 정책적 타당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방도시 간 연대 전략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분산형 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증에 돌입했다. <사진=전북자치도>

회 운영을 통해 과도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

/김영태 기자

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수입이익, 일부 수입업체 식음료 가공업체 편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 개방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윤준병 의원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해받는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관세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

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수입이익금이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세정책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동훈, 대선 출마...“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계엄 탄핵 고통 공감 3년 후 대선·총선 동시 실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21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 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면서 “그



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위험’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강성희 진보당 전 의원, 대선 출마

“민주당과 단일화 없다 새로운 진보당 실현 할 것”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10일 전북자치도 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강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 대개혁 개헌을 실현해 새로운 진보당 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과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 내각을 탄핵해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당 후보가 된다면 개헌을 전면에 갖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尹) 파면 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드러나듯 이 내란은 끝이 아니다”며 “내란 적결과 극우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하다”고 우려 소릴 냈다.

/김영태 기자

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전주5·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지확장의 필요성과 전시공간의 효율화 및 운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은 “도내 14개 시군 및 전남·충청 인접 시군 골목슈퍼의 이용증가로 내방객 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안정

적 상품공급과 취급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부지면적 확대와 소비트렌드 반영을 위한 소포장 공급 강화를 위해 내부시설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거점형 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밝혔다.

/정재근 기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수칙

운전하기 전 음주는 절대 금지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

졸음운전 절대 금지

안전속도 반드시 지키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킵시다”

전북, 축산악취 개선 공모...농가당 7억 지원

시군별 사업비 30억 이내
악취 저감·액비 순환 증점
농가 지원금 20% 상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오는 5월 9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분뇨처리 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군 단위로 지원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시군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별로는 양돈농가 최대 6억 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오는 5월 9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등 인증 농가는 20% 증액된 최대 7억 2천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하다. · 축종별한도액 : (돼지) 6억원, (한우·젖소) 3.6억원, (닭) 2.4억원 (상기 인증 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 :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각 시군에 수요를 신청하면, 시군이 이를 종합해 자체 여건에 맞는 악취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해 전북자치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도와 중앙의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선정 시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려면 ‘악취 저감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은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에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사진은 통로형 온풍기.

<사진=농촌진흥청>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 시연

농진청 연시회에서 선배
농가 확산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10일 열었다.

연시회를 통해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날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다.

/김영태 기자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일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방상팬은 과수원 안의 찬공기를 상부의 따뜻한 공기와 순환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기온이 떨어질 때 과수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온으로 꽃이 시들거나 말라 죽는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날 과수농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기계 전정, 무인 방제, 기계 수확 등 ‘스마트 과원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전북지방조달청 ‘민관공동수급협의회’ 개최

관급 레미콘 수급 안정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창훈)은 전북지역 관급레미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10일 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도내 레미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중요 공사현장’을 지정과 함께 우선 납품제 등 주요제도 설명,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납품제’는 레미콘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민관공동수급협의

회’의 중요 공사 현장 지정을 받아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제도이다.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자리에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 4개 수요기관 관계자, 도내 레미콘 업체가 참석했다.

한창훈 청장은 “레미콘은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건설자재인 만큼 레미콘 업계는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전북지역 관급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전주서 출범...94개 지방공기업 참석

사회적 책임 실천 다짐
산불 피해 회복 ‘첫 과제’
지역 주민 복리 증진 기대

전국 90여 지방공기업들의 협의체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이하 한공협)’가 전북자치도 전주에서 공식 출범했다.

10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라한호텔에서 전국 94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한공협은 지방공기업 간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다.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 서울시 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전국도시공사협의회 등 기존의 3개 지역 협의체를 하나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 가교 역할, 지방공기업 간 정보 공유, 공동 연구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 전국 단위 협력 시스템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전국 118개 지방공기업



전국 90여 지방공기업들의 협의체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전북자치도 전주에서 공식 출범했다.

<사진=전주시설공단>

의 79.7%에 달하는 94개 지방공기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소속 기관들은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첫 실천 과제로 산불 피해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김광표, 성기욱, 조동철 공동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다짐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

적인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공협이 전국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구성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의 지방공기업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도 한공협의 출범에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광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공협은 대한민국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역사,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설공단은 한공협 사무총장 공단을 맡아 한공협이 첫발을 내딛는 출범식을 총괄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한공협의 시작을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공협이 지방자치 발전,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 공단으로서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에 머물며 전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과수 농가 ‘최저 2도’ 저온 피해 대비해야

오는 13일 전북 동부권
장수·무주·임실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기상청 예보 오는 13일(일요일) 급격한 기온 하락 예보에 따른 과수 농가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 단계예보(4.10. 11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12일)까지 최저 4도~최고 25도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가, 일요일(13일)에는 최저 2도~최고 16도 수준으로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경기 북부, 강원 중부 내륙, 충북 북부, 전북 동부권에 있는 과수 농가는 저온 피해 최소화 사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만개기에 접어든 배와 복숭아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는 영하 1.7도, 복숭아는 영하 1.1도 정도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13일 최저기온(2℃) 주요 지역 : 파주, 가평, 철원, 대관령, 평창, 충주, 제천, 장수, 무주, 임실 등

과수 농가에서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저온이 예보된 하루나 이를 전에 과수원에 충분히 물 대기를 하면 낮 동안 흡수된 태양에너지가 밤에 방출돼 과수원 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과수원 바닥에 있는 잡초나 비닐 등 피복물을 제거하면, 토양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과수 농가는 기상청 최신 예보를 수시

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별농장 저온 위험 경보를 알람으로 받으면 농작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난 3월 말 개화기 저온으로 방해가 발생한 배 농가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암 진단 장비 ‘PET-CT’ 최신모델로 교체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암 전주기 진료 장비 도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암센터 장비 지원 공모사업’에 10일 최종 선정됐다.

PET-CT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동시에 대사 과정을 영상화해 암이나 악성종양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암 확산 이후 전이 여부 추적, 치료 효과 판정 등 암의 전주기 진료 과정에 필수적인 고정밀 영상 장비다.

전북대병원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사업에 공모했다.

이에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최신형 PET-CT가 도입되면 암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이 한 단계 향상되어 전북지역 암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북대병원은 “자부담 20억 원을 포함해 총 35억 원을 투입, 노후화된 PET-CT를 최신형 모델로 교체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신규 장비의 도입이 완료되면 공공의료 기반 확대 및 지역 보건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의료 장비의 효과적 인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 접근성이 낮은 도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연계 및 진료비 감면 등 공공의료 확대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12억 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정연준 암센터 소장은 “앞으로 지역

민들에게 보다 정밀한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지역암센터는 암과 관련된 검진, 진료, 치료, 수술, 입원, 재활, 연구 등 모든 영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유)비타민G&P, 정읍·무주 산불 가구 양모이불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유)비타민G&P가정읍·무주 지역 산불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양모이불 100세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비타민G&P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이외에도 정기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유)비타민G&P 유진숙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온기를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기부물품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정읍·무주군협의회를 통해 산불 피해 가구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군산시, 한·중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행사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컨벤션홀 2관에서 개최된 한중(군산시-웨이하이시)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행사가 군산과 웨이하이시의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에 군산시 주최로 웨이하이시에서 개최한 '특성화물 통관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홍보 설명회(포트 세입)'의 후속 행사로 웨이하이시 상무국에서 전자 상거래 기업 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란 국내외 전자상거래(e-commerce) 회사가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직접 등록 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웨이하이시를 포함한 총 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양 도시의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수·출입 무역 교류,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상호 협력 의사를 확립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가유산 야행 연계 전용 열차 지역 명소 관광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과 함께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한 1박 2일 임시열차 관광 상품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관광상품은 오는 18~19일 운영되며, 일반 관광객 180명과 자전거 여행객 60명을 모집한다. 관광객들은 전용 열차를 타고 익산에 도착한 후 지역 명소 둘러보고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일반 관광 상품은 △춘포역 △보석박물관 △용안생태습지 △아가페정원 △이삭한교도소(교도소세트장) 등 익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이뤄졌다. 자전거 여행 상품은 △만경강 △춘포역 △달빛소리수목원 △아가페정원 △함열역 등 자연을 따라 달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품 가격은 1인당 일반 관광은 9만 9,000원, 자전거 여행은 11만 9,000원부터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일정 확인은 여행공방 누리집(www.tour08.co.kr)에서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배우는 인생은 언제나 청춘 군산시 노인대학 입학식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주최한 '2025년 제43회 노인대학 입학식'이 10일 개최됐다. 군산시 노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시립교향악단의 피아노 트리오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성돈 노인대학 학장이 입학생 120여 명에게 입학허가서를 수여했다.

군산시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함양해 보람차고 활기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입학식을 마친 제43기 노인대학은 총 24주간의 학사 일정으로 운영되며, 노인 건강과 안전, 교양 및 역사,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제자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인화동 '소리문화의 숲' 개관

화랑소극장 등 복합문화공간

8월29일까지청년작가특별전시

문화도시 익산시가 인화동에 '익산소리문화의 숲'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을 꽃 피운다.

익산시는 10일 시민들의 문화 휴식처이자 지역 예술가의 창작공간이 될 '익산소리문화의 숲'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소리문화의 숲은 인북로12길 28에 부지면적 2,111㎡, 연면적 1,565㎡ 규모로 지상 2층에 걸쳐 조성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복합문화공간인 익산소리문화의 숲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1층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책을 읽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책다방'과 소규모 모임과 주민들의 소통공간 '삼삼오오 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가족휴게실'이 마련돼 누구나 방문해 여유



익산시는 10일 '익산소리문화의 숲'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익산시>

를 즐길 수 있다.

2층은 익산 예술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소리 화랑'과 연극·무용·영화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소리 소극장'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의 장을,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고품격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인화동의 변화와 미래를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소리에서 인화까지 - 과거, 오늘

그리고 내일'이 열려 지역 예술 활성화에 의미를 더했다.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익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익산에서 활동하는 원로부터 청년 작가까지 총 40명이 참여했다.

익산소리문화의 숲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시장, 체감형 현장행정 분주

국립숲체원 아산병원 등 방문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여가생활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9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현장 곳곳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립숲체원 진입로 개설 예정지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부지 ▲어린이전용병동·소아외래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

국립숲체원 진입로 개설 현장에서는 숲체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과 접근 편의성을 강조했다.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예정 부지를 찾은 자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읍아산병원 내 건립 예정인 어린이전용병동·소아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한 이 시장은 "24시간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병원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입구 간판 정비와 복도 캐릭터 디자인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정지에서는 "출산 이후 안심하고

편안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장애인고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 계획에 세심히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체감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뜰, '아보동' 참여자 모집

청년동아리 팀별 1백만 원 지급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이 2025 청년 활동 지원사업 '아보동' 참여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청년동아리(공동체/모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보동'은 '아주 보통의 동아리'의 줄임말로 거창한 계획이나 활동이 아니

라도 군산 청년이면 누구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뜰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홍보 ▲지역 상생과 에너지 신산업 관련 ▲이자전지 3개 분야의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

다만, 단순 친목이나 취미, 종교·정치·영리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뜰은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팀을 선정하여 팀별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인 청년(18세~39세 이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정기적인(월 1회 이상) 모임을 유지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오는 16일까지 청년뜰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국산 농축산물 20% 할인 행사

4월 14일~6월 13일 진행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대표 전통시장 17곳이 참여한다. 전북에서는 샘고을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돼 운영된다.

행사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2개월간 진행되며, 2주 단위로 4회에 걸쳐 나누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 샘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센터에 마련된 이용권 발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결제금액의 20%가 추가 충전된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용권은 5000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만원 결제 시 2만 4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아 행사 참여 점포

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차별로 1인당 최대 4000원까지 지원되며, 행사 대상 품목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에 한한다. 수입산이나 2차 가공 농축산물(참기름, 양념육, 두부, 미역, 볶음밥 등)은 이번 행사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주4일 출근제' 시행

8세 이하자녀 둔 공무원 대상

익산시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 내부부터 변화를 시작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다. 민원 업무 특성상 시민 응대가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제외된다.

현재 주 1회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익산시 전체 대상 직원의 약 37%인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 초기 60여 명이 주4일 출근제를 활용할 것으로 추

산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해 하루를 휴무로 전환하는 '휴무형 주4일제' 출근 시 정규 근무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중 하루는 육아 전담을 위한 휴무를 갖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 집중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국립군산대학교·새만금개발공사 '맞손'

국립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공사는 8일 새만금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혁신처장 등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과 개발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Co-캠퍼스 구축,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 조성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군산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관련 사업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 등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등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 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진로·진학 1:1 맞춤형 상담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2025년 진로·진학 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진로진학 상담 사업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는 △학교장 추천 △은라인 접수 △학교부청소년센터 추천 3가지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학교장 추천은 각급 학교에 배정된 인원을 바탕으로 추천을 받고, 온라인 접수는 고1~고3 학생 중 희망자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입시정보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익산시 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익산지역 중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총 4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학년별 상담 내용도 세분화됐다. 중학교 3학년은 과목별 학습 코칭과 고교학점제 설명, 고등학교 진학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로 탐색과 학습 계획 수립을 돕는다.

고등학교 1·2학년은 진로 탐색과 생기부 점검, 모의고사 분석, 심화학습 코칭 등을 통해 대학 입시 역량을 차근차근 키우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수시 전략 수립,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 점검, 모의면접 등 실제 입시를 앞둔 실전형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의 참맛·맛·경치 찾아라!

'정읍보물' 선정 작업 박차

정읍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정읍 관광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특산물, 음식을 아우르는 '정읍보물'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맛(3품), 특산물(6품), 명소(9품) 분야에서 각각 대표 주자를 선정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읍보물' 후보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정읍을 대표할 만한 ▲음식 후보 46개 ▲특산물 후보 54개 ▲관광명소 후보 50개가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총 150개의 후보 목록

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차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10미(味) ▲18품(品) ▲21경(景)을 선정했다.

현재 시는 1차 선정 결과를 토대로 2차 선정(6미, 10품, 15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2차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압축된 후보 결과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와 관광발전위원회의 심의라는 최종 관문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읍보물 3미(味)·6품(品)·9경(景)'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정읍보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농특산물, 美 현지 시장 개척

심덕섭 군수 등 LA 한남제인 판촉행사 연간 7억 상당 수출협약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현지 시장개척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를 단장으로한 방문단은 지난 8일 미국 LA한남제인 마켓을 방문해 고창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열었다. 판촉행사는 한남제인 플라턴점, 토렌스점 2개 매장에서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북분자즈, 고춧가루, 천일염, 한과 등 고창군을 대표하는 30여 품목이 LA 한인교포 및 현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풍천장어, 고구마말랭이 등의 특산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판촉 행사 개장 후 한남제인과 연간 50만불(7억원)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해 고창 농특산품의 대미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9일엔 LA 힐튼호텔에서 현지 농식품 바이어를 초청, 고창 농특산물 수출 상담회도 성황리에 열렸다. 현지 바이어 5곳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상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현지 시장 개척에 나섰다. <사진=고창군>

품 시식, 상담을 통해 고창 상품의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고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준비 중인 김치산업 관련 절임배추, 양념류, 김치 등을 소개하며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미국은 인구 3억3000만명의 세계최대 단일시장이다. 한국의 농식품 대미 수출이 매년 10%이상 상승할 정도로 K푸드의 인기가 상당하다”며 “최근 무역관세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국시장

에 고창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고창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 방문단은 LA aT센터 방문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을 살피고, 우리방송 라디오 인터뷰, LA 총영사 간담회 등을 방문하며 고창군을 알리고 농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 본격 추진

40~60세 채용 중소 제조기업 마케팅 비용 등 300만원 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고용 정책을 마련하고, 신중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는 40세부터 60세까지의 신중년층을 채용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지원 사업으로 △채용장려금 △마케팅 비용 지원을 제공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이 지역 일자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커리어 코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신중년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은 지난 9일부터 김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진흥과, 김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6322억 규모 사업 발굴

“중앙부처 소통·설득 통해 국가예산 확보 적극 노력”

고창군이 지난 9일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 실현을 위한 2026·27년 국가예산 4차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4차까지 발굴한 2026·27년 국가예산 사업은 총 114건에 총사업비 6322억원 규모다. 이 중 2026년 사업은 78건 4352억원이다.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창군은 중앙부처 예산편성 마감 시점인 5월말을 앞두고, 4·5월을 부처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창군이 지난 9일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실현을 위한 2026·27년 국가예산 4차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고창군>

특히 지난 해 사상초유의 감액예산안 의결로 국회단계에 미반영된 ‘국제기능스다리평 경기장 조성’ 등 7개 주요 사업이 부처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식 고창부군수는 “5월 말까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올해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상’

도 2024년 분석·진단 평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한 몫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2024년 결산)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북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자치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세외수입 일반 및 기타 특별회

계 결산 실적에 대한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실시하는 평가다.

도 세외수입징수율, 시·군 세외수입 징수율 등 8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시·군을 시부·군부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로 이뤄졌으며, 김제는 도 세외수입 및 시·군 세외수입 징수율,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이월 체납액 결손처분, 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 실적 등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 시부 그룹 최우수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표창 및 특별 조정교부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세정과와 부과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적기 체납 처분 실시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힘썼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웰파크시티, 우수 웰니스 88선 선정

관광공사, 여행 요소 충족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

고창군 웰파크시티가 한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선정됐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 중 고창 웰파크시티가 신규로 포함됐다.

고창웰파크시티는 ‘국내 최고 리조트형 건강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를 표방하고 있다.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에서 수압 자극을 통해 물리치료의 효과를 느낄수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있다.

이외에도 건강식 면역밥상 등 웰니스 여행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

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90개 객실을 갖춘 웰파크호텔도 운영을 시작했다.

고창군은 선운산, 운곡람사르습지, 고창읍성 팽죽축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상하농원 동물교감 프로그램 등 도시인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우수 웰니스 관광지 고창에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며 휴식과 힐링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적합’

부안군은 지난 9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사후관리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사는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 운영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절차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 요소를 내재화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기준에 따라 외부 인증기관이 주관했으며 부패리스크 식별과 평가,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내부 심사 및 경영 검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절차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최초로 인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인증은 군의 청렴 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황윤석 생가’ 민속문화유산 승격 위한 학술대회

고창군과 전북대 이재연구소가 10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황윤석 생가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 조명’을 주제로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고창 황윤석 생가는 이제 황윤석 선생이 태어나고 생을 마감한 곳이며, ‘이재난고’가 보관돼 있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황윤석 생가의 역사적, 건축사적, 생활민속사적, 풍수지리적 의미 등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

신병욱 교수(전북대)는 ‘고창 황윤석 생가의 건축사적 가치와 생활사적 의의’ 발표를 통해 임지 선정의 이면에 담긴 학문적, 민속신앙적 맥락과 공간에 깃든 삶의 방식, 사상적 기반,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했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복지국장은 “앞으로도 황윤석 생가에 대해 풍부한 실측 조사와 문헌 고증,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활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생생한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나들이철 맞이 ‘팻티켓’ 홍보 강화

고창군이 나들이철을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상호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팻티켓홍보활동에 나섰다.

고창군 축산과 직원들인 지난 9일 석정지구 및 천변 일대에서 군민과 반려견 동반객을 대상으로 팻티켓 안내문을 전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견의 인식표 부착 및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목줄 길이는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축산농 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오는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젓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노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우는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이며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인 농가다. 젓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이면 가능하다.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이 적용된다.

정성주 시장은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올해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심사·신규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일부터 2025년 상반기 신규업소를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40개 업소에 대해 재지정 심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에 맞춰 착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집중모집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이후 4월 말까지 기지정 40개 업소와 신규 신청 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5월말까지 신규·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하다”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순금 5돈 추첨 이벤트 운영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청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에서 특별 추첨 이벤트 ‘황금돈을 선물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부안군 대표 축제 캐릭터 ‘산돌마실돈’, ‘붉은 노을돈’, ‘푸른바다돈’으로 구성된 부안몬 프렌즈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순금 5돈의 카드형 골드바 6개를 제작해 부안 관내 3명과 관외 3명 등 총 6명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다.

응모방법은 축제기간(5월 2-5일) 중 부안 소재 식당·숙박업소와 축제장 내 부스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 관내·외로 구분된 응모함에 본인의 주소지에 맞게 응모하면 된다.

응모함은 축제장 내 자연마당(별미마실)과 주무대에 마련되며 오는 5월 5일 폐막식에서 공개 추첨하고 추첨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향후 주민등록등본 등 당첨자를 확인 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 이벤트는 협찬을 통해 진행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 군민의 날 ‘화합, 축제’ 꾸민다

개최 앞두고 준비 박차 트로트부터 전통놀이까지

순창군이 오는 18일 개최하는 제63회 순창군민의 날을 앞두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문화행사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순창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군민화합음악회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연진으로는 홍진영, 박현빈, 마이진, 박상철, 박민주, 예지니가 무대를 꾸며 관람객들에게 흥겨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행사는 전통과 지역색을 살린 △민속놀이 경연대회 △축득행렬 △군민 화합기원제 △옥천줄다리기(교싸움) 등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골목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마당, 전통놀이 체험, 먹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18일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꾸며진다. <사진=순창군>

거리 버스 운영 등 부대행사로 풍성하게 마련된다.

또한, 관내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짜장면, 떡볶이, 파전, 호떡, 불어빵 등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로 중앙로 일대에는 교통제한 등 일시적 불편이 예상되지만, 중앙로 상인회는 화장실 개방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행사 성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행사 11일, 군수 주재 행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당일 중앙도로 일부 구간은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군은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춘향제 ‘100년’, 세계화·지역 활성화 비전 제시

남원, 춘향제 축제 포럼 자생력 강화·미래 전략 모색

남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 ‘춘향제’의 100년을 향한 여정 속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캔싱턴리조트 지리산 남원 연회장 ‘새원’에서 ‘2025 남원 문화관광 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와 축제 관광상품 전략’을

주제로, 축제 및 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문화자원의 미래가치와 활용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2024년 세계 축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 정책, △지역관광 콘텐츠 전략, △축제 글로벌화 전략,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의제가 다뤄진다.

남원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춘향제를 매개로, 지

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관계 인구 유입 전략, 축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장기적 도시 비전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춘향제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축제 기반의 도시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2030년 춘향제 100주년을 향한 전략 구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의회 “도시가스 미공급 어떻게 해결할까”

도시가스 확대보급 간담회 소외 해소·제도 개선 논의

완주군의의회(의장 유익식)는 10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미공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익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의회 의원 전원,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전북도시가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미공급지역 공동부담 협약 등 3가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완주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4%로 나타나지만,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54.3%에 그쳐 체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급망 지원사업 수요조사 또한 일부 읍면에 한정돼 있어 전 지역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공급배관 100m당



완주군의의회는 10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미공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완주군>

수요가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는 전남(45세대), 광주(34세대) 등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사업비를 지자체·사업자·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의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논의됐다.

완주군의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익식 의장은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복지의 출발점이자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요소”라며 “도시가스 공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예산 확대,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광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는 기존 마스코트인 ‘마루와 나레’를 새롭게 재단장하고 신규 추가 캐릭터 ‘몽게·구름’과 함께 공개했다. <사진=남원시>

남원국제드론제전 마스코트 새 얼굴 공개

디자인 개선 활동도 제고 신규캐릭터 추가 개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기존 마스코트인 ‘마루와 나레’를 더욱 친숙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새롭게 재단장하고 신규 추가 캐릭터 ‘몽게와 구름’을 함께 공개했다.

기존 ‘마루와 나레’는 하늘과 날개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남원을 자유롭게 누비는 휴머노이드 드론 로봇을 형상화했다. 이에 더욱 밝고 친근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이아이의 발달한 모습을 모티브로 새 단장 됐다.

또한 신규 캐릭터 ‘몽게와 구름’도 추가로 개발해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채로운 표현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남원 국제 드론 제전의 공식 심판을 함께 삼입해 지역적 상징성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 지역 브랜드의 통일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명실상부한 드론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 단장 된 마스코트 ‘마루와 나레’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식기 다화용기 교체

지난 3월 도와 비용 지원 협약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조문객 식사에 사용되던 일회용기를 전면 다화용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당 평균 50L 종량제 봉투 7개 분량의 1회용품 폐기물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폐기물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자원 순환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

도 및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화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다화용기 구입 비용과 세척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례식장 내 모든 조문객 식사는 앞으로 다화용 그릇, 수저, 컵 등으로 제공된다.

사용 후 다화용기는 전문 세척업체가 수거해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재공급되며, 재사용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다화용기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운송에 필요한 비용만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꽃감’ 브랜드 강화 진도 벤치마킹

지난해 지리표표시제에 등록된 ‘완주꽃감’이 완주꽃감연합회 주관으로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완주꽃감연합회는 지난달에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나무 전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전남 ‘진도홍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도군를 방문했다.

진도홍주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인 브랜드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 사례로, 이번 벤치마킹에서 완주꽃감연합회는 진도홍주의 운영 방식과 성공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완주꽃감 활성화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도 완주꽃감 활성화를 위해 완주꽃감홍보사업, 완주꽃감축제와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꽃감을 제공하기 위해 완주꽃감연합회와 협력하며 지원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교육

온라인 통합망 ‘보탬e’ 전반

순창군이 지난 9일 어울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이용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편리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다.

이 시스템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조금의 중복 수령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실시됐으며, 각각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점검, 정산관리 등 시스템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1대당 300만원 총 4대 지원

완주군이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다. 1대당 300만 원씩 총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조항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경유차대신 LPG차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공고 후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만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3일까지 선착순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군청 6층 자원순환과(친환경정책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로컬콘텐츠연구소 ‘이성계팸투어’ 언론·미디어 종사자대상 진행

로컬콘텐츠연구소(대표 손안나)가 ‘다시 만나는 영웅, 태조 이성계’란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집중 분포돼 있는 역사유적지를 탐방하는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 (태조 이성계 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흘러간 역사 속의 유산으로 머무는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유적을 ‘현재화’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화자산으로 키우고 또 글로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2회차 프로그램은 지난 1회차(3.30~31일)에 이어 ‘전주, 조선왕조의 분향’이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13일에는 경기전 영역의 경기전과 어진 박물관, 조경도, 전주사고, 예종대실비 등과 전통성당, 오목대, 이목대, 한벽루, 전주향교 등 한옥마을 일원을 관람한다.

이어 14일에는 전주부성 남문, 전라감영, 전주객사, 조정당 등을 관람한다.

특히 팸투어에는 공개되지 않는 ‘조경묘와 대한조경단’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협조로 관람과 참배를 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대상자는 전라북도 이외의 거주자로 ‘역사·문화종사자, 언론사 기자 및 칼럼리스트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이다. 이들은 투어 기간 내 다양한 SNS 수단 등을 통해 전주의 매력을 홍보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자인 로컬콘텐츠연구소의 손안나 대표는 “이번 탐방행사를 통해 ‘자칫 잠자는 역사유산 또는 흘러간 옛 이야기 속의 역사유산으로 머물지도 모르는 태조 이성계 관련 많은 유적들을 살아있는 관광자산으로 현재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ebts협동조합 남원지국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기업 ebts협동조합 (회장 이승원) 남원지국(지국장 김종관)에서는 조합원 25명이 10일 남원시 농협오거리에서 ‘양보 운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현수막과 어깨띠를 두르고 출근하는 남원시민들을 상대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또한 교통가든에서 ebts 전조합원들이 참석해 ‘한란상훈’의 정신에 입각한 설립이념에 의거 단합대회 및 시니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ebts협동조합은 배달업 시연회와 배달식을 하며 꾸준한 준비를 거쳐 현재 30개의 독도사랑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1,000개의 주유소를 운용해 전국적으로 휴대폰 앱을 이용한 배달주유를 하며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아파트분양사업, 상호회사, 공간청춘, 일본여행등 복지사업을 계속하며 또한 돌아온 유머 일반지도 제작해 전국의 가정에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고향사랑기금으로 청소년 뉴질랜드 보낸다

중학생 2학년 대상 선발 홈스테이 해외영어 캠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지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024년부터 시행한 ‘남원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는 고향을 떠난 고향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작년에는 관내 중학생 24명을 선발해 17박 18일 (7.17. ~ 8.3.) 동안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올해도 7월

중 뉴질랜드 현지 공립 중학교에서 17박 18일 일정으로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고향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위탁업체 모집 중으로 5월 중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참여 학생을 모집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2025년 4월 11 일 금요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진안군, 10명 9차례 교육

진안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은 5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추진된다.

경영체 진단과 농가 현황 분석을 토대로 경영과 기술에 대한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경영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후계농, 청년농업인,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농가이며, 모집인원은 10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읍·면 상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노금선 소장은 “컨설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정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미래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 진안군, 순회교육·점검 서비스

진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3인을 한 조로 구성해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팀으로 꾸리고, 4월 2주부터 오는 7월까지 관내 40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는 농업인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관리기, 방제기 등 소형농기계에 대해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리고, 사고 예방 수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기계 사고 예방의 핵심이 ‘사전 교육’에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단순 수리를 넘어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 중심의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잠깐의 교육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현장 순회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없는 영농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집중 홍보

임실군이 농작업,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는데,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제한적이고, 서식지 제거를 위한 방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 이내에 고열, 근육통,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20%에 달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방법은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진드기 기피제와 돗자리 사용하기 등이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대선공약사업 반영 총력

국회 안호영 의원실 방문 국도 건설계획 등 논의

무주군이 건설 및 상하수도 분야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새롭게 발굴한 사업의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실을 찾은 권태영 건설과장, 이무상 상하수도과장, 박선옥 세종사무소장 등은 안호영 의원을 만나 △무풍-대덕(김천) 국도 30호선 △설천 심곡~두길 국도 37호선 △안성~적상(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 등 도로 시설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 일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도 30호선 및 국도 37호선 도로 시설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태권도원 방문객 수와 무주군 관광 발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정책성 평가 항목에 비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또 △환경부 공모사업인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공모 선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선 공약사업으로 준비 중인 중점사업도 공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

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포된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해 (가칭)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원의 무주군 설립을 구상 중이며, 이후 산림청을 방문해 (가칭)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원의 설립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국도의 중심 무주가 전국 교통망의 중심으로 거듭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군다운 면모로 산악 안전 전진기지, 산악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청년발전기금 활용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당 최대 100만원

장수군은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관내 중위소득 150% 이

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은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 이내에 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연영·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수군은 지역 청

년들의 주거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수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장수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손동규 진안군의회 “담배제품 결함 책임 명확히 하라”

유해성 축소·경고 부족 지적 명확한 정보 제공 촉구 “국가·국민 건강 보호해야”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10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담배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10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명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흡연이 폐암 등 중대한 질환의 주요 원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의 책임을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함을 인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10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담배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사진=진안군의회>

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에 책임을 다할 것 △담배 제조사는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유해성 정보의 축소를 지양하며, 금연 정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연에 따른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손동규 의원은 “국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되며,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을 마쳤다.

/진안=최진수 기자

임실군, 오는 7월까지 고덕산 등산로 정비

2억원 투입 2.5km 숲길 등산객 안전시설 구축

임실군이 관촌면 고덕산 일대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고덕산 일부 경사 구간에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강우에 의한 침식과 암반 노출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양이 유실돼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과 불편을 줄여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고덕산은 해발 625m로 8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며 등산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4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총사업비 2억여원을 투입, 약 2.5km에 이르는 숲길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한다.

이번 정비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성이다.



임실군이 관촌면 고덕산 일대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억여원을 투입, 숲길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한다. <사진=임실군>

고덕산 등산로 전 구간에 걸쳐 숲길 정비와 더불어 침목 계단, 안전 로프 난간 등을 새롭게 설치해 경사면 구간의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고덕산 등산로 정비로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고덕산이 더 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동참

황인홍 군수 “지방소멸 위기 직면…행복 무주 만들기 최선 다할 것”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지난 1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감소·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아이의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처음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캠페인에 참여하

고 있으며 무주군은 금산군(군수 박범인)의 지목을 받아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에 함께 했다.

다음 주자로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장수군(군수 최훈식)을 지목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역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내일도 올 만하고, 오늘도 살만한 무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역이 안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 △귀농·귀촌인 유입 등 지원에 정성을 쏟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동부권 수직농장 방문

시설조성 등 추진 상황 점검 시험 재배 작물 생육상태 확인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9일 계남면 침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조성 추진상황과 운영 준비 보고를 받고 업체류, 부주 등을 재배 중인 수직농장 재배실을 둘러보며 작물의 파종, 이식, 재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험 재배 작물의 생육상태도 직접 확인했다.

장수군은 스마트팜 영농기술 확보와 임대농장 운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에 장수군-전북특별자치도-CJ 제일제당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군의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ICT 기반으로 생육환경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해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농업 시설로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훈식 군수는 “수직농장은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으며 우리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로컬푸드 전주·진안점 도지사 인증 직매장 선정

진안군은 진안로컬푸드 전주점과 진안점이 각각 도지사인증 직매장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지사인증 직매장 제도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해 운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한 직매장을 인증하고 있다.

로컬푸드 인증은 잔류 농약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 농가 조직화, 운영관리 투명성, 위생 상태 등 평가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점과 진안점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

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 지역 농민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진안로컬푸드 전주점과 진안점은 앞으로 전북자치도 소비자 모니터링단으로부터 불시 현장에서 무작위로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손준엽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번 도지사 인증을 통해 진안의 우수한 농산물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생 방안 논의

장수군은 10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과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공유하고, 장수군과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측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

혔고, 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장수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비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기업인들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시 우리 아기 첫 공연 16·17일 ‘얼굴과 얼굴, 마주봄’

익산시가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 어놀며 교감하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습 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1세 영아와 보 호자를 위한 체험형 공연 ‘얼굴과 얼굴, 마주봄’ 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사람의 얼굴에 관심이 많은 아 기의 특성을 살려 제작된 특별한 공연으로, 배 우가 인형과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사람과 사 랑의 첫 만남을 연극적 표현으로 전달한다. 관람료는 체험식 1만 원, 마주봄식 5,000원이 며, 생후 6개월부터 15개월 이하 영아와 보호 자만 관람이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協, 독거노인·취약계층에 반찬 전달

고창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 원장 김영민)가 지난 9일 관내 독거노인 등 취 약계층 70가구에 반찬을 전달하는 따뜻한 시 간을 가졌다.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오이 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김무침 등 반찬을 정성 께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김영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식사 준비가 어려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 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기석태 ㈜MOA건설 대표, 무주군에 5백만 원 기탁

재대전무주군민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석 태 ㈜MOA건설 대표가 지난 10일 무주군에 고 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서 태어난 기석태 대 표는 “나를 낳고 키워준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라며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 는 무주가 항상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고향사 랑기부금에 담아 전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단풍미인씨름단, 정읍 씨름 위상 드높여

평창씨름대회 단체전 3위 백두급 김찬영 선수 맹활약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평 창에서 열린 전국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기록하며 정읍 씨름 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평창오대산천장 사 씨름대회’에 참가해 선전했다. 대한씨름협회 주최, 평창군 씨름 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

는 전국의 16개 실업 씨름단이 출 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예선전에서 부산갈매기 씨름단을, 8강전에는 MG 새마을금고 씨름단을 차례 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아쉽게도 4강에서 문경시청씨름 단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 했지만, 치열한 승부 끝에 당당히 3위에 오르며 단체전 강호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백두급 김찬 영 선수는 팀의 에이스로 맹활약 하며 단체전 3위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평창에서 열린 전국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기록하며 정읍 씨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사진=정읍시>



남원시 동충동 8통 경로당 주민들, 영남권 산불 피해 성금 동참

지난 9일 동충동 8통 경로당 주민들이 최근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2만 원을 기부했다.

동충동 8통 경로당 주민들은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 한다”며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이웃으로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모금’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함께 봄날의 감성 충전

26일 군산예술의전당

군산 예술의 전당이 바이올리니 스트 ‘대니 구’와 함께 떠나는 낭만 적인 음악 여행에 관객들을 초대한 다.

오는 26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 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 는 클래식계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 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니 구’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대니 구’는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래 정통 클래식 무대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다각 화하고 있으며, MBC 〈나 혼자 산다 〉,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하며 대 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봄의 정취를 느 낄 수 있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 번’과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 주곡’으로 1부를 꾸밀 예정이다. 2 부에서는 아름다운 향구 도시인 부 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을 묘사한

피아졸라의 ‘사계’로 활기차고 생명 력 있는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전달 한다.

대니 구 &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 라의 〈프림avera〉는 티켓링크에서 △R석 4만 원 △S석 2만 원에 판매 하며, 16일까지는 조기 할인 20%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 전당 누리집(<https://www.gunsan.go.kr/ar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농협 여성산악회,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여성산악회는 10 일 군산농협에서 산불 피해복구 성금 390만 원을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원천연 농협중앙회 군산시지 부장,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과 군산농협 여 성산악회 임원들이 참석해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했다.

이번 성금은 여성산악회 회원들이 산을 사 랑하고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기 금으로 피해 농업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 루빨리 영농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 음을 담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임실 신평면 행복나눔協, 이동 빨래 봉사활동

임실군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 (공공위원장 홍충의, 민간위원장 손완진)가 임실군자원봉사센터와 지난 9일 신평면 호암마을에서 이 동 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사철이 시작되어 바쁜데도 불 구하고 양 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 자 15여 명은 호암마을회관 앞으 서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하여 어 르신 혼자서는 빨기 힘들었던 이 불 빨래 등을 수거하여 깨끗하게 세탁했다.

복지이장, 지역 주민, 공무원 등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 고, ‘동네방네 국수잔치’, ‘따뜻한 식사 한 끼’ 등 다양한 마을 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더불어 사 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손완진 민간위원장은“작은 봉사 활동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이웃의 소소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따라 강바람 따라 건강걷기’ 행사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 성분과가 최근 삼례읍 비비정 벚 꽃길에서 제5회 ‘완주 따라 강바람 따라 건강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아 이들과 부모님, 다문화 가족, 50여 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또한, 벚꽃 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상춘객들 도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해 즐 거운 시간을 가졌다.

걷기 이외에도 전래놀이, 가족사 진, 실물체험, 버스킹 감상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 홍보를 통해 가 정에 방치된 폐건전지와 폐의약품 수거를 목적으로 한 환경지킴이 활동도 진행됐다.

조인자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여성분과장은 “여가활동과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상 속 에서 자연과 함께 공동체의 소중 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정읍성광교회, 정읍 소성면 산불 이재민 위해 성금 700만 원 기탁

정읍성광교회는 10일 소성면 산불 이재민 을 돕기 위해 700만원을 기탁하며, 10년 넘게 이어온 이웃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 번 이어갔 다.

이번 기탁은 성광교회가 꾸준히 이어온 나 눘 활동의 연장선으로,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 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정읍=김정인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一事一言〉



한덕수 권한대행, 역사 앞에 죄짓지 말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션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례 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기습 지명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헌법적 권한의 남용이자 위험적 행태이며, 나아가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비상한 시기'의 '비정상적 결정'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헌정 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자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고위 공직자에 불과하며, 그 직무는 헌법적으로도 본질적으로 '국정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단지 관행이나 정치적 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신중한 제도 설계다. 이러한 제약은 대통령의 권위 상태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대행 체제가 헌정의 중대한 변화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역대 어느 권한대행도 감히 하지 않았던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

재판관 지명을 강행했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어떤 사전적 정치적 합의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단지 부적절함을 넘어,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 유린이자, 더구나 지명된 인물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처가 소송을 대리하고, 검찰독재로 비판받던 국정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온 전력이 있다. 그는 지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데도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떤 설명도,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자체해한다"며 임명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이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더군다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는 초유의 자기 모순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똑같은 사안에 직면하자 '국정의 현상 유지론'을 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중 잣대, 건강부

회, 그리고 헌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고무줄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가? 야당과의 협의가 있었는가?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여전히 권한대행의 뒤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권 안팎에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측근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정치적 '지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후적 심판 기관이며, 삼권분립의 균형유지를 위한 핵심 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그 자체로 정권의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에게 헌법 최종 해석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곧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조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규 지명자는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자기모순적인가. 그는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사적 공간에서 열린 '4인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를 인멸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

고 있는 형사 피의자다. 그를 임명한 한 권한대행 역시 이 모든 정황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법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국가의 헌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무시하며, 밀어붙이기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잠시 마음을 놓았던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정파적 반대가 아니다.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에 맞서 지켜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으며, 역사는 이를 수없이 증명해 왔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헌정 위기는 단순한 인사 참사를 넘어, 헌정 자체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위헌적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단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관료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하나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완규 지명자 역시 헌법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침묵 속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침묵을 거부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헌법재판소를 지키는 데 있다.

사설

‘전북투자청’ 설립 제안, 검토할 가치 있다

글로벌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요즘,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기존 산업 유지에 머무를 수 없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의 위기에 놓인 전북은 더욱 과감하고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전북투자청' 설립은 시의적절한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행정기구 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전북특별법 개정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왔다. 그러나 국내 기업 유치에만 의존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현실적 인식에서 이번 제안이 출발했다. 이제는 국경을 넘는 자본과 기업의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절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이미 보편적 흐름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과 함께 약 2천여 개의 기관이 지역과 도시 단위에서 설립돼 운영 중이며 실제로 경제적 성과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런던은 그 대표적 사례다. 런던은 2011년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출범시킨 이래, 10여년 만에 2천490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8만9천여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단순한 외자 유치를 넘어 고용,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을 이룬 결과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경남, 대전 등 여러 지

자체가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해외 자본 유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관이야말로 변화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법임을 방증한다.

전북이 투자청 설립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기업 유치 및 자본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복잡하게 얽혀 있는 투자 관련 행정업무를 단일 창구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단순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해외 인재 및 국제행사 유치까지 포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함으로써 사람과 자본, 기업이 함께 모이는 '글로벌 전북'을 실현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민, 금융 투자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또한 마련되고 있는 만큼, 투자청 설립은 타이밍 측면에서도 적기다. 물론 기존 유관 기관과의 기능 중복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통합과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며 초기에는 작은 조직으로 시작해 점차 독립 법인 형태의 전문기구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이제 전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투자청 설립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지역소멸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 더는 늦출 수 없다. '전북투자청'은 전북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금요시선

풀 / 김수영

풀이 늙는다
비를 몰아 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높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르고 풀이 늙는다
밭둑까지
밭 밑까지 늙는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늙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늙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늙는다

시인 약력 : 1921년 서울 출생. 1968년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 땅에 머물렀던 기간 47년, 시인이 쓰는 시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시대의 한계에 묶이는 경우가 많아 시인의 시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의 시에는 시인의 거침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데올로기의 울타리를 뚫어버리는 저항적 시들이 많다.

독자광장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정읍시 농축산업의 새로운 도약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바람 앞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우리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내

수 침체와 수입산 공세로 설 곳을 잃어가는 축산농가에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정읍의 생산자들에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정읍이 가진 경쟁력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내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농축산물을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과 함께 자국 농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을 향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

구도 예상돼 대한민국 농축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2011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20억 8천100만 달러, FTA 발효 전 5년간의 연평균 13억 1천900만 달러 대비 무려 57.8%가 증가한 바가 있다.

우려대로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전북 축산업의 1번지인 정읍시의 농축산 농가는 이미 어려운 내수 시장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실상가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총체적 난국인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나고,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고 했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우리 정읍시가 가진 시스템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읍시는 올해 16억 7,400만 원을 투입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미래 성장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구축과 방역 강화 등의 조치는 미국산 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하는 면도 있다. 한우, 돼지고기 등 지역 특화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하여 수입산 축산물과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역 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대규모 농가로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맺어 타 지자체와 축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세 철폐 요구나, 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이 발달한 정읍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라는 폭풍의 전야를 지나고 있다. 이 거센 폭풍을 피해 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번 위기는 정읍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이 필요한 지금, 정읍시는 변화의 중심에서 더욱 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선국사 대응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1985년 8월 16일

-소재지 - 남원시 산성길 239 (산곡동)

-시대 - 통일신라시대



문화재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04.11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맞춤형 복지도시 매진하는 정읍시 복지 정책 소외 없는 도시를 향해, 정읍의 따뜻한 약속



정읍시가 올해 복지분야에 603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외계층 보호부터 자활 지원, 의료급여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까지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편집자 주

더 넓어진 기초생활보장...탈락가구까지 꼼꼼히 챙긴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올라 4인가구 생계급여 지원액이 월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됐다. 덕분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수급 탈락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긴급복지와 민간지원 등 다양한 연계 체계로 보호한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강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참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통장, 생활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약제비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 역시 최대 15% 이내에서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도와 현금급여 지원, 상한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병행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로 복지서비스 질 높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복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했으며, 도내 유일하게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복지분야 603억 투자 복지도시 구현
생계급여 확대·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강화·국가유공자 예우 높여

사, 시설종사자 등 시민 141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했다.

지난해만 밀란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총 932건의 서비스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한 생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2199세대에는 18억 30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했다. 더불어 '행복나눔공유냉장고'를 내장상동 등 4개 동에서 운영하며, 총 4억 9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아 6만 3729세대에 나눔의 온정을 전했다.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으로 저소득층 탈빈곤 이끈다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서 핵심 전략이다. 이에 시가 직접 수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4억원, 정읍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23억원을 투입해 세탁, 세차, 카페 등 12개 사업단에서 126명이 일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선형성사업에 4억원을 들여 282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서비스 강화...의료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이제 정읍시의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로 한결 가벼워졌다. 올해 총 32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25가구의 주거시설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1800명에게 연간 27억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도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명절마다 정읍사랑상품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필수 보수교육 비용 전액 지원, 국내 연수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 만든다

이웃을 돕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읍시의 복지 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 61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수리, 청소 등 생활 밀착형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억 7000만원을 들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봉사자 표창 등을 지원한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재능나눔축제'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위기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적극적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골고루 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